

“지역 특성 살린 행정으로 살기 좋은 흥도동을 만들겠습니다” 고양시 첫 주민추천제로 선발된 김선미 흥도동장

주민 투표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인 ‘주민추천제’가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됐다. 김선미 신임 흥도동장은 48명의 주민추천인단이 직접 뽑은 고양시 첫 주민추천제 동장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별한 자리인 만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 같다고 말하는 그의 각오는 남달랐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주민이 직접 뽑은 첫 동장

김선미 동장은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고양시 첫 ‘주민추천제’ 방식을 통해 동장으로 임용됐다. 고양시는 그간 내부공모방식을 통한 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후보자를 모집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김선미 동장은 ‘첫 선례’가 되었다는 부담은 있지만,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무척이나 달라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지난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 동 운영계획을 PPT로 발표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주민분들에게는 무척 신선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웃음). 하지만 10년 전 흥도동주민센터(당시 동사무소)에서 15개월가량 행정팀장으로 일했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마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주민들 앞에서 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 모두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낯설고 얼떨떨했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큼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아주신 첫 동장이니까요.”

‘첫 주민추천제로 선발된 동장’이라는 타이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응원해주는 주민들이 있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김 동장. 책상 앞에 앉아 머리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 밖으로 나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며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이다.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을 위해

인구 4만8천여 명의 도농복합지역인 흥도동은 현재 고양시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다. 과거 자연부락 중심이었던 이 동네는 2012년부터 원흥지구 개발을 통해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됐으며, 인근 창릉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내년부터는 동 신설로 인해 일부 지역(고양대로 북측)이 흥도동에서 삼송2동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때문에 더욱 밀도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김 동장은 말한다.

“흥도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예요. 주민들 역시 조상 대대로 한마을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원흥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때문에 원주민과 신규 유입인구의 조화가 당연한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도시와 농촌 간의 간극을



줄이고 친구가 조화를 이루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이 필요

지역의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동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물론 이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흥도동은 역사가 깊은 곳인 만큼 문화유산 등의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마을축제로 발전시켜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이끌어나가는 자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예요. 또한, 다양한 문화재와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충분히 누리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 내 고장 바로알기, 문화유산 탐방 등 애항심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는 데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주민추천제로 임명된 첫 동장인 만큼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 동장. 앞으로 주민자치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해나갈 흥도동의 내일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